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한 장면.

# 미투에서 빛투까지 폭로로 멎든 연예계

2018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3> 영화·연예계

## 700만 돌파 '보헤미안 랩소디' 대흥행 방탄소년단, 한국가수 최초 빌보드1위

올 한 해 연예계는 구하라 폭행 사건, 고 신성일씨 타계, 한국 가수 중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등 다사다난했다.

문화계는 '미투' (me too) 도를 끓였다. 문단, 공연, 연예계에 걸쳐 확산된 미투 운동의 파장은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나타내는 '위드유' (with you)의 메아리를 불렀고, 최근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는 '빛투' (빛 too)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 은 연예계도 피해갈 수 없었다. 배우 조재현은 과거 드라마 제작 현장 막내 스태프 성추행과 미성년 성폭행, 재일고포 여배우 성추행 등 5차례에 걸쳐 성 추문에 휩싸였다. 조재현은 "나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밝혔고,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배우 고 조민기는 교수로 몸담았던 청주대 연극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을 매 생을 마감했다.

이밖에도 데뷔 후 첫 전성기를 맞은 김생민 역시 지난 2008년 노래방에서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출연 중인 방송과 광고에서 모두 하차했으며, KBS는 오달수, 곽도원, 최일화 등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들에 대해 출연 섭외 자체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의 미투 논란 화살은 자식들에게 돌아갔다. 조재현의 아들 조수훈씨는 SNS를 통해 가계 홍보 및 여행 사진을 올려 비난을 받았으며, 고 조민기의 딸 조윤경씨는 연예인 데뷔 무산 루머에 고통 받기도 했다. 이후 조윤경씨는 SNS에 해명 글을 남겼으며, 사실이 아닌 도를 넘은 댓글에 대해서는 대처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식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건 빛투에서도 계속됐다. 빛투는 미투와는 반대로 부모로 인해 연예인 자식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빛투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사실



방탄소년단

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마이크로닷은 이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 놓았으나, 사기 피해자들의 고발이 잇따름에 따라 아들로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행방이 묘연해 잡적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비, 마동석, 조여정, 한고은, 도끼, 휘인 등도 빛투 논란에 휩싸였으며,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빼놓고 올해 영화계를 논할 수 없다. 영국 밴드 '퀸'의 일대기를 다룬 이 영화는 지난 10월 31일 개봉, 7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음악 영화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이다.

영화를 한 번 보고 난 관객들은 '퀸 뽕' 혹은 '퀸망진장' (퀸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의미)에 빠져 여러 번 재관람을 하며 현재까지 흥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1시 기준 실시한 예매율 1위를 차지했으며,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러 영화의 인기는 현재진행형

을 보여준다.

MBC는 지난 2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 상황을 방송하기도 했다. 심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를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재방송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퀸'의 다큐멘터리 '내 심장을 할린'이 방영됐다.

KBS 역시 지난 10일 다큐멘터리 '프레디 머큐리 퀸의 재왕'을 방영해 3.3%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예고편에서부터 최근 배우들의 SNS를 통해 전반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벤 하디(로저 테일러 역)가 육일기가 프린팅된 티셔츠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일어 제작자 이십세기 폭스는 하루 만에 육일기를 지운 수정 영상을 올렸다. 지난달에는 배우들의 일본 여행 인증 사진에 육일기가 등장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보람 기자

## 한국화 한상우·수채화 최정애 '대상'

### 제31회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 결과 발표 입상작 26~30일 광주비엔날레관서 전시

제31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수채화 최정애(여, 광주) 작 '그날' ▲한국화 한상우(남, 광주) 작 '희망' ▲문인화 이점자(여, 광주) 작 '청영요풍' ▲민화 서양희(여, 전남) 작 '노장탈춤' ▲한문 서예 박상숙(여, 광주) 작 '백강선생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미협광주시지회는 서양화, 한국화, 공예, 디자인, 문인화, 조각 등 11개 부문 접수작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 미술대전에는 지난해보다 180여점이 증가한 1,739점이 접수됐다.

분야별 최우수상은 ▲서양화 김려원(여, 광주) 작 '日常' ▲한국화 김배중(남, 광주) 작 '신사의 추억' ▲문인화 박준미(여, 경기) 작 '봄나들이' ▲서예 오창림(남, 제주) 작 '춘계문답2' ▲서각 이필영(남, 전남) 작 '화이부동' ▲민화 박미정(여, 광주) 작 '춘일계관도' ▲디자인 장성호(남, 광주) 작 'water course 광주시립국제수영장 버스정류장' ▲공예 인영희(여, 전북) 작 '모란이 피기까지2' ▲미디어사진 최희영(여, 광주) 작 'fit in the mirror' ▲미디어 사진 최인옥(남, 광주) 작 '기쁨'이 선정됐다.

이번 대전은 예년과 달리 민화 부문이 신설됐으며, 1차 심사와 2차 본 작품 심사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



한국화 대상 한상우 작 '희망'

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참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전의 변화된 분위기와 인기를 실감했으며, 무기명투표, 심사과정 촬영 등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대상 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입상작들은 이날부터 30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전시된다.

/이연수 기자

## 광화문 금호아트홀 내년 5월 폐관

### 금호아트홀 연세무대에서 이어갈 예정

클래식 명소인 광화문 금호아트홀이 내년 5월 폐관한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은 11일 금호아트홀 홈페이지에 "금호아트홀이 있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건물의 사정 때문에 내년 5월 1일부터 광화문 금호아트홀이 더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90석 규모의 광화문 금호아트홀은 2000년 완공 이래 완벽한 음향 설계 시스템을 갖춘 공연장으로 널리 사랑받았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선보이는 금호 영재·영아티스트 콘서트, 아름다운 목요일 콘서트 등 음악공연 지원사업은

내년 4월 30일까지 광화문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금호아트홀 연세무대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금호아트홀 연세는 금호아시아그룹이 2015년 연세대에 건설 및 기증한 390석 규모 클래식 전용 홀로, 신촌 연세대 안에 있다.

재단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광화문 금호아트홀을 떠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금호아트홀 연세에서도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음악 영재 지원사업과 클래식 공연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했다. /연합뉴스

#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